

# 열정 의 번식 의 작은 일기



임 구 호

\*임구호님은 민청학련 사건시 경북대학교를 졸업하고 학내 후배들의 운동을 지도하다가 구속되었다. 중앙정보부가 1973. 4년 대구지역 민주화운동 선배들과의 교류를 고문 조작, 소위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엮이게 되어 8년의 감옥살이를 했다. 현재는 '민생경제와 시민정치를 위한 포항연대'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1969년 경북대학교 정사회(正思會) 부회장 겸 본회 제5기 대표로서, 나는 6월 25일 총학생회가 주최한 3선개헌 반대집회에 참여하였다. 6월 초부터 우리 5기가 중심이 되어 준비를 해왔었지만 선배들의 설득으로 양보하여, 21일(?) 법정대 학생회가 주최한 쫓겨대회에는 참석이 제한되고, 2진으로 배치되어 대기하고 있는 상태였었다.

그러나 총장(박정기)에게 총학생회장이 구인(?)당하고, 4학년 선배들이 모두 학과 교수들에게 붙잡혀 있는 상황에 처해 나는 「반독재구국선언문」을 낭독한 후 우리 3학년이 주축이 되어 교문 밖 진출을 시도하였었다.

후문 밖 목욕탕 옥상에 거점을 마련했던 경찰 사복조들을 습격하여(유중선·이해만·임구호) 무전기 등 전리품을 챙기고, 시내 진출을 감행하였다. 이후 우리는 휴교령에도 불구하고 학내 규탄집회와 점거농성 등을 시도하며 3개월에 걸친 투쟁을 계속하였었다.

9월 14일 새벽 민주당 의원을 매수하여 3선 개헌안이 국회 제3별관에서 날치기 통과된 후 국민투표에 항의하여 우리는 학생회관 2층 강당 점거 농성에 돌입하였다. 책걸상으로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밧줄에 매단 통으로 음식물을 제공받으며 2차에 걸쳐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하며 대학당국의 진입작전을 봉쇄하였었다.

이때 지도하는 선배로서 자상한 형님으로 만났던 여정남·김승희·문제현 선배 동지들, 진원규·유중선·성진용·홍윤순

(이상 4기), 정화영·이진우·양제영·한태준(이상 5기), 이현세·문동주·조준명·윤엽(이상 6기), 여석동·전정효·정만기·정욱표·장한목·권영기(이상 7기) 등 선후배 동지들과 함께 투쟁했었던, 격렬한 젊음은 50대 중반을 넘어선 지금에도 언제나 나를 지탱해 주는 열정의 원천이다.

3선개헌 반대투쟁으로 4·5·6기 회원 대부분이 제적, 무기·유기정확 학사징계를 받았던 정사회는 대학당국에 의해 강제 해산당하여, 나는 6기 회원들과 고심 끝에 70년 3월 7기 회원들을 중심으로 정진회(正進會)를 창립하여 정사회를 계승하게 하였었다.

나는 이 해 5월 고려대학교 한맥회가 주관한 학술토론대회에 후배들과 함께 참가하였었다.

그때 고려대의 조성준·유영래·김영곤·함상근·조연상 등, 서울대의 서중석·서원석·유인태·장명국·채만수·안평수 등, 연세대의 김영준과 합숙·토론하고, 3선개헌 반대투쟁의 한계를 ① 각 대학이 고립적으로 전개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분산·약화시켰고, ② 앞으로 상호 연계하여 학생운동의 역량을 확대 조직하고, ③ 서로의 투쟁경험과 학습자료들을 교환할 것을 결의하였다.

또 6월 초에 개최될 경북대학교 문리대 학생회 주최 학술토론대회에 적극적으로 결합할 것을 약속하였었다. 행사를 마치고 우리 경북대학팀은 서울대학 문리대·법대·상대측의 초청을 받아 순회 방문 좌담회와 술자리를 가졌었는데, 인식의 지평을 넓

히는 많은 도움을 받았었다. 특히 서울대 팀들이 챙겨준 주요 자료들은 학습활동에 큰 기여를 하였었다.

70년 6월 3일 경북대학 문리대 학술토론대회에는 전국의 학생 동지들이 참석하였고, 친선체육대회와 여정남 선배까지 동석한 밤을 새운 토론은 마음을 열고 뜻을 모으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기억된다. 칠혹의 밤길을 술과 젊음으로 굳게 어깨동무한 행군이 군 구보부대와 충돌하여 격투 직전까지 갔었던 사건은 지금도 새롭다. 그때의 사진과 자료들이 ‘서승·서준식사건’으로 모두 없어진 것이 참으로 아쉽다.

1970년 11월 정진회는 전태일 추도식을 거행하여 지도교수(김성혁)가 사퇴하는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71년 4월 전국 서클대항 학술토론대회를 개최하여 「반독재 구국선언」을 채택하기에 이른다. 물론 이는 4월 27일에 있을 제7대 대통령선거(김대중·박정희)에서 반독재 민주전선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참여 서클 — 계명대학 대학토론회, 고려대학 한국사상연구회·한맥회, 부산대학 한얼, 서울대학 문우회·사회법학회·산업사회연구회·후진사회연구회, 연세대학 한국문제연구회, 경북대학 정진회)

정보당국은 선언문 내용 중에서 “…… 개값도 안되는 혈값으로 귀중한 우리 젊은이들의 생명을 용병이란 오욕에 찬 이름을 들어가며 월남에 보내어 저희들 정권유지의 도구로……”라는 구절과 “…… 반외세 반독재 전선에 총궐기하라!”는 문구를 문제삼아, 소위 ‘정진회 필화사건’ (반공법 위반)을 고문·조작하였다.

이때 여정남·김승희(대구매일기자)·이현세·여석동·정옥

표·정만기 등이 구속되고, 전정호(정진회 회장)가 수배되는 아픈 상처를 남겼었다. 이 사건은 74년 민청학련사건 공판에서 ‘유죄’로 최종 정리되었다.

당시 연행되었으나 입대를 위해 짧게 깎은 머리를 핑계로 구속을 피한 나는 법률구조의 도움을 얻기 위해 ‘민주수호경북협의회’를 여러 차례 방문하였었다. 선후배 동지들은 옥고를 당하고 있었지만 나에게에는 이때가 축복이라 할 수 있는 다시없는 번신의 기회가 되어 주었다.

이재문(선전부장) 선배님이 주신 『들어라 양키들아(Listen Yankee)』를 통해 월남전의 진실을 인식하게 되었고, 유한중(공동대표) 선생님의 말씀으로 박정희의 친일매국 행적과 배신과 굴종의 비인간성을 충격 속에 파악할 수 있었으며, 서도원 선생님의 가르침으로 민족의 평화통일과 인간존재의 문제에 새 지평을 열 수 있게 되었다.

이후 민주수호경북청년협의회 결성을 준비하면서 정만진·김승균 선배들로부터 4·19 민주혁명의 열린 공간에서 전개된 대구지역 민주·통일운동 — 교원노조(김문심·이목), 피학살유족회(이원식·이봉영), 2대악법 반대투쟁과 학생민통련(정만진·이재형·전재창·기세환·조주환·박영목·변태광), 민족자주평화 통일운동(안민생·김성달·이정규·변○○ 등), 노동조합 시연맹과 시협의회(이일재·라경일, 김말룡) —에 대해 소상히 정리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민족민주청년동맹(위원장 서도원, 간사장 도예종)의 전위적 역할 — 각 단체의 지도부와 결합, 투쟁을 조직하고 선도한

—을 전해 듣고, 청년으로서 나 자신의 천박한 역량에 대하여 비판적 성찰을 수행하는 계기가 되어 주었다.

부·마항쟁과 10·26, 5·18과 6월 민주항쟁 등 위기와 혼돈, 기회의 격변기에서 한국사회가 진동할 때마다 서도원·도예중·우홍선·이재문·이수병 등 통일열사들의 그림자가 더욱 크게 느껴졌다. 그분들이 계셨더라면 더 많은 가능성을 구체화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과 한없이 작아지는 나 자신의 자괴감을 떨칠 수가 없었다.

72년 10월유신 비상계엄 하에서, 여정남·임규영·이한용과 나는 대공분실에서 포고령 위반(불법집회) 죄목으로 고문·구타 등 3개월의 수감생활을 처음으로 경험하였다. 서대문구치소 입감소감은 간단한 것이 아니었다. 이때 여정남 선배의 고초가 특히 컸었다.

73년 4월 27일 여정남 선배와 나는 상경하여 유인태의 집에서 서중석·이철 등을 만났었다. 그 동안 박정희 유신독재의 탄압에 의해 흐트러졌던 각 대학 주체들간의 상호연계를 복원·강화하는 일련의 점검들을 시도하였었다. 나와 유인태, 이철과 임규영, 서울·대구 연락책으로 배영순, 부산대학은 경북대학이 연락을 담당한다는 등 역할배치와 관계 확인이 있었다.

그런데 10월 2일 고립적으로 감행된 서울 문리대 시위는 대구의 우리들을 무척 황당하게 하고 크게 격앙시켰다. 왜냐하면 이 시위사건으로 인해 각 대학의 연계체제는 아무 준비없이 동결되고, 정보기관의 감시가 강화되어 후속 준비가 훨씬 어려워졌기



▲ 2003년 9월, 대구의 고 도예중, 송상진, 여정남님의 묘소를 참배하는 민청학련 동지들

때문이다.

더구나 불길을 이어가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너무 없었다. 그러나 여정남 선배의 설득과 독려 속에 이미 조직된 역량(한국풍토연구회 : 필화사건으로 정진회가 해체당한 후 나와 전정효·이수일·임규영·황철식 등에 의해 창립된 여학생도 참여시킨 서클)을 재편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하였다.

여정남 선배와 정화영, 나는 한풍회의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이강철 등의 동참을 끌어내고, 부산대학(김재규)에도 연락을 서둘렀다. 마침내 11월 5일 학내 규탄집회 후 가두진출까지 성사시켜, 한달간 유비통신과 대남방송으로 떠돌던 반유신의 함성을 국내언론에 처음으로 기사화하는데 성공하였다.

이강철·신유균·최문숙·강기룡 등 4인 구속 이후 반유신

학생시위는 들불처럼 전국화되었고, 박정권의 조기방학과 구속자 석방조치로 74년을 위한 재충전의 모색기로 들어가게 되었다.

1973년 12월에서 74년 2월에 걸쳐, 여정남 선배와 나는 3·4월 조기 데모와 9·10월 UN데모를 두고 치열한 토론을 벌였었다. 여정남 선배는 유신헌법 개정운동 등 정세분석에 토대하여 불가피한 희생은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었고, 나는 경북대학의 자체 조직역량에 근거하여 문제(선도투쟁 불가)를 제기하였다.

두 사람의 이러한 판단과 입장 차이가 당시 대구지역 선배님들에게도 논쟁의 불씨를 제공하여, 나와는 아무런 사전 의견 조율도 없었던 이재문·안재구·이재형·김승희 선배님들에게 엉뚱한 홍역을 치르게 하였던 것 같다.

이러한 진통들 때문에 여정남 선배는 직접 상경하여 서울의 동지들을 만나 반유신 박정권 타도의 최일선에 온몸을 던지기로 결심하셨지 않나 판단된다. 여정남과 유인태·이철·황인성·정화영·임규영·이강철 등의 직접연계(서울대·경북대 경우) 속에 수행된 민청학련의 반유신 반독재 민주화 대행군은 한국 학생운동의 새로운 지평과 가능성을 열어낸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되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74년 3월 21일 경북대학 반유신 시위 이후 정화영·임규영·이광하·황철식·장승백·강기룡·윤규한·김진규·김시형·조태수·유진숙 등이 도피중 3월 29일 전후 검거되자, 여정남 선배는 서울의 유인태·이철 등과의 결합을 강화하려고 한 것 같다. 이는 박정희 유신독재권력의 탄압 따위는 께념치 않은 오



로지 자기희생의 결단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1960년 경북고등학교 학생으로 2·28 학생시위를 경험하면서 2대악법 반대투쟁, 한·일회담 반대투쟁, 3선개헌 반대투쟁을 거쳐, 생의 마지막이 된 반유신 민주화 투쟁에 혼신의 힘을 다 쏟아 부으신 것 같다.

지금은 경북대학교 민주광장에 ‘작은 기념비’로 버티고 계시지만, 186cm의 큰 키에 사자후처럼 우렁찬 목소리를 가지셨던, 남들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나라와 겨레를 위한 헌신의 삶을 허허롭게 버리셨던 그분이 참으로 그림다.

“구호! 너 지금 뭐하니?”

이승과 저승이 하나인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연연하니 — 바로 그것을 경계하라!는 당부가 귓전에 맴돈다. 함께 교정의 낙엽을 굴리며 찬 바람에도 가슴을 열었던 황금의 젊은 시절이었던가!

1970년대는 월남전 패퇴 이후 엄습한 반공 이데올로기의 동요, 정경유착과 부정부패, 빈익빈 부익부 사회의 구조화, 미·일 종속형 경제개발의 파탄 등 총체적 위기가 가속화되고, 억압과 소외, 빈곤과 차별의 굴레를 벗어 던지려는 민중의 저항전선이 폭발적으로 고양되는 갈등과 혼란의 시대였었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71년 대선을 ‘영남의 지역감정과 부정부패 공작선거’로 3선에 성공한 박정희 독재정권은 폭력과 공포의 막다른 절망의 통치방식으로 돌파하려 했었다.

72년 국회해산과 비상계엄으로, 그것도 자신들이 만든 헌정

을 파괴하면서 10월유신을 감행하고, 73년 8월에는 일본의 수도 동경에 체류 중이던 김대중씨를 현장에 '백두산' 담배꽂초를 흘려 북의 공작처럼 위장하는 치졸한 수법으로, 국가기관인 중앙정보부를 동원·납치하는, 대한민국을 불법과 부도덕, 억압과 폭력이 난무하는 세계의 웃음거리로 '근대화' 시키고 있었다.

이러한 반민주 폭정과 부패의 쾌락을 구사하려는 권력의 독기는 결국 '살인의 공포와 패권적 지역감정'에 매달려 그 연명책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 1975년 4월 9일 인민혁명당계 서도원·도예중·우홍선·이수병·송상진·하재완·김용원 일곱 분과 민청학련계 여정남 선배를 '사법살인' 함으로써 영남지역의 저항세력 지도부를 파괴하고, 전국 민주세력을 협박하는 양면 전술을 강행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북대학은 1974년 10·11월 가두시위와 78년 학원민주화 가두시위, 남민전의 이재문·안재구 선배 동지들의 결사항전으로 대행군을 계속하였으며, 79년 10월 26일 박정희 유신정권의 비극적 종말을 재촉하는 지역적 진앙지로서 소명을 다하였다.

비록 YS의 개량화 조치, IMF사태와 DJP 공조가 영남의 패권적 지역감정과 박정희 신드롬으로 재환생하여 TK를 수구 보수의 대명사로 희화화하고, 추종 패거리의 현실 지배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긴 하지만, 이제 그 파국의 일정표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 또한 숨길 수 없는 현실이다.

통일열사 서도원·도예중·우홍선·이수병·송상진·하재완·김용원, 그리고 이재문·여정남 열사가 민족·민중·민주의

시대와 함께 부활하는, 제대로 된 신명난 역사의 지평이 열릴 그 날이 다가서고 있다. 와야 할 세상을 기다리는 나는, 지난 세월의 끝자락에 서서 바람에 날리는 교정의 낙엽소리를 바라보며 지난 시절의 회상에 젖어들고 있다.

▲ 작은 연표 : 1968~75

- 1968. 11. 21      주민등록증 발급
- 1969. 6. 5        삼선개헌반대 범국민투쟁준비위 결성
- 6. 19        삼선개헌반대 학생 데모 시작
- 9. 14        삼선개헌안 새벽 2시 국회 제3 별관에서  
                  날치기 처리
- 1970. 3. 17      한강변에서 정인숙 여인 피살
- 4. 8        서울 와우시민아파트 붕괴
- 6. 2        당시 「오적」 필화사건으로 김지하 시인 구속
- 6. 21        고려대 NH회 사건
- 7. 1        경북고속도로 개통
- 11. 13      청계천 전태일 열사 분신
- 1971. 4. 27      제 7대 대통령선거
- 5. 25        제 8대 국회의원 선거
- 7. 28        사법파동
- 8. 10        광주 대단지 민란
- 8. 23        실미도 특수군 저항사건
- 10. 15      위수령 발동 - 서울 10개대 임시휴교, 교  
                  련반대시위 탄압

- 12. 6      국가비상사태 선언
- 12. 25     대연각 호텔 화재사건
- 12. 27     국가보안법 변칙 통과
- 1972. 7. 4   남·북 공동성명 발표
- 8. 3      기업 사채동결 등 대통령 긴급재정처분 명령(8·3조치)
- 10. 17     10월유신 — 전국 비상계엄과 국회 해산
- 11. 21     유신헌법 국민투표
- 11. 30     「비어」(김지하의 시) 사건으로 『창조』지  
자진 폐간
- 12. 27     유신헌법 공포 — 박정희 제8대 대통령 취임
- 1973. 2. 27   제9대 국회의원 선거
- 4. 28     윤필용 수도경비사령관 구속
- 8. 8      동경에서 김대중씨 강제 납치사건
- 10. 2     서울문리대 반유신 민주회복 시위
- 10. 6     제4차 중동전쟁 — 1차 오일쇼크
- 12. 3     이후락 정보부장 경질
- 12. 24     장준하·백기완 선생 등 유신헌법 개정청  
원운동
- 1974. 1. 8     긴급조치 1호 선포 — 유신헌법 비방과 반  
대 금지
- 4. 3      긴급조치 4호 선포 — 민청학련·2차 인  
혁명당 관련자 탄압조치
- 8. 15     대통령 저격과 육영수 피살(문세광 체포)

- 9, 10월 반유신 학생데모 격화
10. 24 자유언론 실천선언 — 동아일보 기자
12. 7 12·7 특별조치 — 환율 20% 인상, 석유  
류 인상 등 물가고
12. 24 동아일보 광고 사태
1975. 2. 12 유신헌법 찬반 국민투표
2. 15 민청학련 구속자 석방
3. 13 「고행-1974」로 김지하 시인 재구속
4. 8 긴급조치 7호 발동 — 고려대학  
민청학련·인민혁명당 재건단체 사건 대  
법원 공판
4. 9 민청학련·인민혁명당 재건단체 사건 관  
련자 8인 사법살인
4. 11 김상진 열사 할복자살 — 서울대 농과대학
4. 30 월남 패망 — 한·미군 사이공 탈출
5. 13 긴급조치 9호 발동
8. 7 장준하 선생 의문사

